

지역 소식통

김제시, 저소득층 대상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저소득계층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 2억3,000만원(복권기금50%,시비50%)의 예산을 세워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단열공사, 보일러 공사 및 샷시교체, 도배장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추진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내년 1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시급성, 소득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해 주택 내·외부 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 이내(’21~’23년)에 유사 중복 접수 리 서비스를 지원받은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고부가가치 내수면 신제품 토하양식 간담회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민물 새우인 새뱅이 토하 양식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획기적인 내수면 양식 산업화의 롤 모델을 구상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산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김제시의회 황배연 부의장과 안전개발국 최승선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 조형근 과장, 이승근 금산면장, 이명호 해양항만과장 및 토하마을 조성사업 참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토하마을 조성사업은 김제시 금산면 황곡마을 주민 20명이 금산면 일원에 모하관리센터 1개소와 개별 양식장 20개소를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토하마을 조성사업이 본격 착수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사항과 일정별 계획을 공유하고 개발법 사항 등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를 사업참여자에게 사전 공지하여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마련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돌파

## 내년도 1조113억원 확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4년 1조113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정책의 기초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1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내년도 시 직접 집행 사업 예산(국도비 보조사업) 4,978억원과 국가 직접 사업 5,135억원을 반영하기까지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원택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루어 활동한 것이 주요했으며 전북도와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과과의 공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더욱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정부 설득이 어려워 예산 반영 여부가 불확실했으나,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10억원(총사업비 250억원) △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구축사업(계속) 21억원(총사업비 90억원) 특장차 안전진료형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16.5억원(총사업비 267억원) △ 지평선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10억원(총사업비 173억



김제시가 2024년 1조113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9.4억원(총사업비 1,092억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다각화 지원 9.5억원(총사업비 45억원) 등 김제발전을 견인할 6개 사업 76.4억원(총사업비 1,899억원)이 반영됐다.

이러한 결과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시장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수시로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인맥을 확보하고 문턱이 높도록 국회를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로 국가예산

분야에서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고의 노력과리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는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북권 국회의원들과 서삼석 예결위원장, 김두관·정운천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김제발전 100년의 초석을 다지도록 혼신의 대장정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희망2024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

## 김제시, 내년 1월까지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동안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추진중인 '희망2024나눔캠페인'에서 한 달도 안된 지난 26일에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매년 연말연시에 진행되는 이웃돕기 기부 캠페인에 한 톨 두 톨 소중하게 동전을 모아 오신 어르신부터, 나눔장터와 재능 경연 활동을 통해 얻은 수

익을 기부하는 학생들, 해마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너소사이 어터까지 다양한 계층의 크고 작은 성금, 소중하게 가꾼 농산물과 여러 주민이 함께 참여해 담긴 김치와 장인의 손길이 깃든 빵 등 정성이 담긴 물품의 기부가 잇달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온도탑의 100도를 넘긴 김제 시민의 기부문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아 참여가 저조할까 염려되었는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시는 많은 기부자들 덕분에 사랑의 온도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시민의 따뜻한 마음에 매일 감동을 받고 있으며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은 내년 1월 말까지 김제시청 주민복지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모금된 성금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인력운영 효율화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 특별교부세 3.8억 확보·효율적인 인력 운용 노력 인정받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인력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8억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인력운영 효율화는 최근 2개년에 걸쳐 행정수요 변동 수요 발생에도 정원 증가 없이 기존 인력을 자체 감축 및 재배치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2023년 인력운영 효율화 우수 자치단체로는 김제시를 포함해 전국 7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이번 평가에서 김제시 최초 및 전북도 내 유일하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2023년도 사회복지사업에서 5관왕을 달성했다.

# 완주, 사회복지사업 '5관왕' 달성

## 지역사회보장계획·장애인복지 등... 2500만원 상당 포상금도

완주군이 2023년도 사회복지사업에서 5관왕을 달성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 한해 완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상금 1,400만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상금 650만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상금 425만원) △보건복지부 '완주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최고 도약기관 선정의 성과를 올렸다.

군은 5개 부문 수상으로 총 2,500만

원 상당의 포상금도 받게 됐다.

완주군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자원을 고려해 상호 소통하면서 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복지증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새해에도 우리의 노력이 곧 군민의 행복과 비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누리는 행복도시, 완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

## 내년도 사업 의지 다져

완주군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의지를 다졌다.

27일 완주군은 최근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임산부를 포함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350여명의 아동을 통합사례관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사업 성과보고와 내년 사업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자료 등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완주군은 지리적 한계 극복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아동 발달서비스와 가정방문 학습 프로그램 5종을 지원했다.

또한, 주사무소를 군청사 내로 이전하고 삼례읍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해 지리적 여건으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회의에 참석한 조영식 부군수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